

중소기업계 “네거티브 전환” 촉구… “규제합리화 끝까지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

김 총리에 ‘규제합리화 100선’ 전달 정부·中企, 규제대화 통해 의견교환 김 총리 “경제 고비 넘어 규제 논의” 업계, 100선 중 7건 현장서 구두 건의 김기문 “정부 말기 규제개혁 약속”

범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게 ‘2025 중소기업이 뽑은 규제 합리화 100선’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12월3일 계엄으로 깜짝 놀란지도 한해가 됐고 그동안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악의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쉽지 않아서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될 때”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총리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에선 김 총리를 비롯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욱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민석 총리와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의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동력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만큼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리고 100건의 현장 규제도 잘 검토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규제를 개혁이라는 표현도 쓰고 혁신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번엔 합리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규제 해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초기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적으로 놓치지 말고 계속해달라는 말씀을 아주 중

하게 관심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신문고, 경제협·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총 1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에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에 초기 창업 중소기업(3년 미만)까지 확대해 심사기간 대폭 단축(1년이상→2개월) ▲군사 접경지에 공장 신축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 완화로 침해받았던 재산권 보호 강화(건폐율·용적률 등 유지)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내 전기·정보통신 제조업자의 공사업 입주를 허용해 중

소기업 부담 경감(생산원가, 임대료 절감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시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완화해 신생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전국조합 8000만→4000만원, 지방조합·연합회 4000만→2000만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김 총리에게 현장에서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

용전자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을 건의했다. 100건 중 나머지 93건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업계에 회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와의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명이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전국 17곳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

중기부, 중기중앙회, 벤처協 등 운영 법무·세무·특허 등 창업 전문 상담 분야별 전문가 등 1600명 자문단도

민관이 힘을 합쳐 창업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식을 갖고 전국 17곳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 운영에는 민간에선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동참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원센터는 법무, 세무, 특허, 노무 등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업자 전용 통합 창구다.

그동안 중기부는 센터 구축을 위해

10회에 걸친 창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또 협단체와 연계해 분야별 전문가, 대기업 퇴직인력, 성공한 선배 창업가 등 1600여명의 자문단도 구성했다.

자문단에 참여하는 노타 채명수 대표는 창업 초기 직접 겪었던 애로를 공감하며 “단순한 조언을 넘어 선배 창업가로서 현장 경험과 실패까지 솔직히 나누며 후배 창업가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힘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기부는 또 이날 행사에서 참여 민

간 협력단체들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기존 기업·산업과 스타트업간 접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각자 보유한 법률 지원, 멘토링,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서비스 인프라를 원스톱 센터에 연계·공유함으로써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AI창업·경영컨설팅트’ 민생10대 프로젝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AI창업·경영 컨설팅트’가 정부의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됐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소진공의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팅트’는 교통·인구·매출 등 상관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 추천, 제품 및 단가 제안, 영업시간 조정, 운영전략 수립 등 맞춤형 창업 준비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화에어로, MENA 시장 공략 본격화

EDEX서 K9·천무 통합 솔루션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아프리카(MENA) 지역을 겨냥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방산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협력국 이집트에서 K9 자주포 패키지가 2026년 전력화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4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약 4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행사로 꼽힌다.

전시관 중앙에는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의 실물 유도탄이 자리했다. 최대 사거리 80~290km급 천무 1.0 유도탄 3종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달 1~4일까지 열리는 ‘EDEX 2025(이집트 방산 전시회)’ 한화 부스에 전시된 ‘K9 자주포’ 패키지 모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 천무 2.0 대함유도탄(ASBM)도 공개됐다.

2022년 이집트와 약 2조원 규모로 체결된 K9 자주포 패키지 모형을 전시했다. 패키지에는 이집트 해군의 해안방어용으로 최초 배치되는 K9을 비롯해 155mm 포탄의 명중률을 높이는 탄도수정신관과 정밀유도포탄이 포함됐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 선도

해상풍력 확대 생산·시공 역량 강화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한전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전선 업계 최초로 ‘해저케이블’ 분야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공급망안정화선도사업자’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의 안정화를 주도하는 기업을 선정해 재정·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이번 선정의 배경으로 해저케이블 생산 및 시공 역량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이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한 점

등을 꼽았다.

해저케이블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해상풍력 발전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프로젝트의 적기 추진은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약 14 GW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한전선의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확보는 해저케이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주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대한전선이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의 안정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설비 투자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해저케이블 공급망 강화와 국가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I로 업종추천·운영전략 맞춤 지원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경영 효율 향상

서비스는 기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운영 환경을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며, 월평균 73만5000건의 플랫폼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빠른 확산과 높은 현장 체감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내년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 구축과 데이터·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2027년부터 소상공인 365내에서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팅트’ 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통해 평균 매출 증가와 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높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호 기자